

치유와 화해 그리고 경계를 넘어

27일 정읍역 광장서 코리아 유라시아 로드런 전국 투어 공연

한반도 평화 정착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남북 철길을 기원하는 문화예술 공연이 27일 오후 2시 정읍역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찾아 문화예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움직이는 무대 차량을 이용해 역사적 현장을 찾아 공연을 펼치며 문화를 교류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상처가 상처를 보듬다'를 주제로 한 이번 평화 콘서트는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코리아-유라시아 로드런'이 주최하고 정읍시가 후원한다.

<코리아-유라시아 로드런>의 달리는 무대 차량이 정읍역 광장에 찾아와 동학농민혁명의 아픔을 상기하고 화해와 치유를 위한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공연은 시인·소설가 등 문인부터 화가·뮤지션까지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모여 평화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공연을 함께 한다.

가수 김원중과 프롤로그, 꽃향, 오월어머니 합창단 등이 평화를 노래하고 시인 박관서와 화가 주홍, 사진작가 리일천은 시와 그림, 사진으로 교감한다. 또, 특별공연으로 조용균 정읍시립국악단원의 판소리에 김석환 평안도 택견 전수자와 유대수 씨의 역동적인 택견무와 대륙이 어우러진 공연 천명 중 '하늘님이 시어'를 선보인다.

여기에 시민의 호응과 열기를 바탕으로 휴전선과 북녘땅,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육로 평화 길 조성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리아 유라시아 로드런 전국 투어 콘서트의 첫 번째 공연이 동학을 상징하는 정읍에서 열린다"며 "그 대장점을 시작하는 첫 바퀴를 굴리는 무대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유라시아 로드런'은 2018년 6월 창립됐다. 무대 차량으로 대륙을 거쳐 평



양·시베리아·모스크바·베를린 암스테르담을 지나며 그 지역과 우리의 문화를 결합시킨 유라시아 공연을 계획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술익은 날, 한잔할까?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내달 2일 우리 술 체험 행사 개최

원주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에서 우리 술 체험이 펼쳐진다. 2일 원주군은 내달 2일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에서 '2019 술익은 날 한잔할까?'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 개관 5주년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은 5주년 행사 준비에 앞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우리 술의 역사와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하고자 박물관 전시 행사를 주제로 한 '술익은 날 한잔할까?'를 연다. 이날 오전 10시 구이저수지 둘레길 걷기 행사와 연계해 오후 2시 오프닝무대에서 주민 100여명이 하나 되어 맛과 향이 좋은 우리술 '한잔해' 폐창폐춤 공연을 진행한다. 또한 2019년 두 번째 기획전인 '자네와 나는 친구야 친구, 한잔하세' 전시와 함께 우리 술을 주제로 한 가양주·인주상 콘테스트, 천생연분 술과 안주 포토존, 전통주 빚기, 막걸리발효 술 빵 만들기, 꽃을 띄운 나만의 술잔 만들기 등이 준비된다. 또한 4층 상설전시관에는 대한민국 술의 역사와 문화, 술의 재료와 제조, 대한민국 명인명주, 술꽃피는 역사관, 주점재현관, 향음문화체험관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일 원주군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술 유물을 보유한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은 우리술의 역사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박물관이다"며 "가을이 어울어지는 11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술박물관 장독정원 술꽃 향에 몸과 마음이 힐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내일 전주교대 국악경연대회 열려

'제18회 전주교육대학교 전국 초·중등교사 국악경연대회'가 내일 오후 1시부터 본교 음악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주최하고 국립민속국악원, 전주시립국악단, 한국국악교육학회에서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의 유일한 국악경연대회다. 이는 국악교육의 활성화와 유능한 국악교육전문가의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교사개인부문으로 실시되는 올해 대회에서는 서울, 경남, 전남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온 초중등교사 13명이 경연을 벌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교수환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악기장이 제작한 가야금이 주어진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 전국 초·중등교사 국악경연대회가 내일 오후 1시부터 본교 음악관에서 열린다.

전주교대, 실과 작품전시회 성료

전주교육대학교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과 작품전시회를 미술실과관 1층 로비에서 실시했다고 전했다.

실과교육과는 실과 교과와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실과 교과를 담당할 예비교사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며, 기획-제작-전시-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협업하면서 친목 등을 다지기 위해 매년 작품전시회를 실시하고 있다. 첫날 전시회에는 대학원장, 기획실장, 초등

교육원장, 도서관장 등 많은 보직교수들이 참여해 작품전시회를 축하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가정영역에서 침선공예, 천연염색, 한지공예, 매듭공예 작품들이, 기술영역에서는 로봇, 3D프린터 생활용품(공기청정기), 드론, LED 플래카드 등을 전시했다.

최경은 교수(실과교육과)는 "전시회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의 성취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어린이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전통이라는 이름의 아날로그와 현대라는 이름의 디지털 감성이 공존하는 작품전"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정읍시 연지아트홀에서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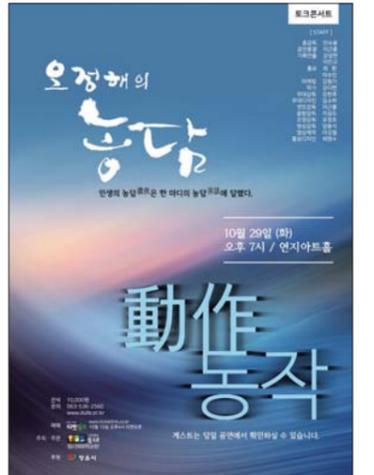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이 오는 29일 '동작(動作)'으로 찾아온다.

이번 '동작'은 무대 위에서 움직임으로써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양한 동작들을 통한 예술의 세계로 관객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초대 게스트는 비공개로 당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오정해의 농담은 3월 '시작'부터 9월 '종착'까지 꾸준하게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는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영상편지 사연 소개 코너 '온라인 주문'도 운영된다.

'온라인 주문'은 사연을 신청해 선정된 시민들에게 영상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코너로 선정자는 VIP 좌석 티켓 2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사단법인 돌레 안수용 이사장은 "이번 공연도 시민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고자 심심껏 준비했다"며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이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 : 동작(動作)의 티켓 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